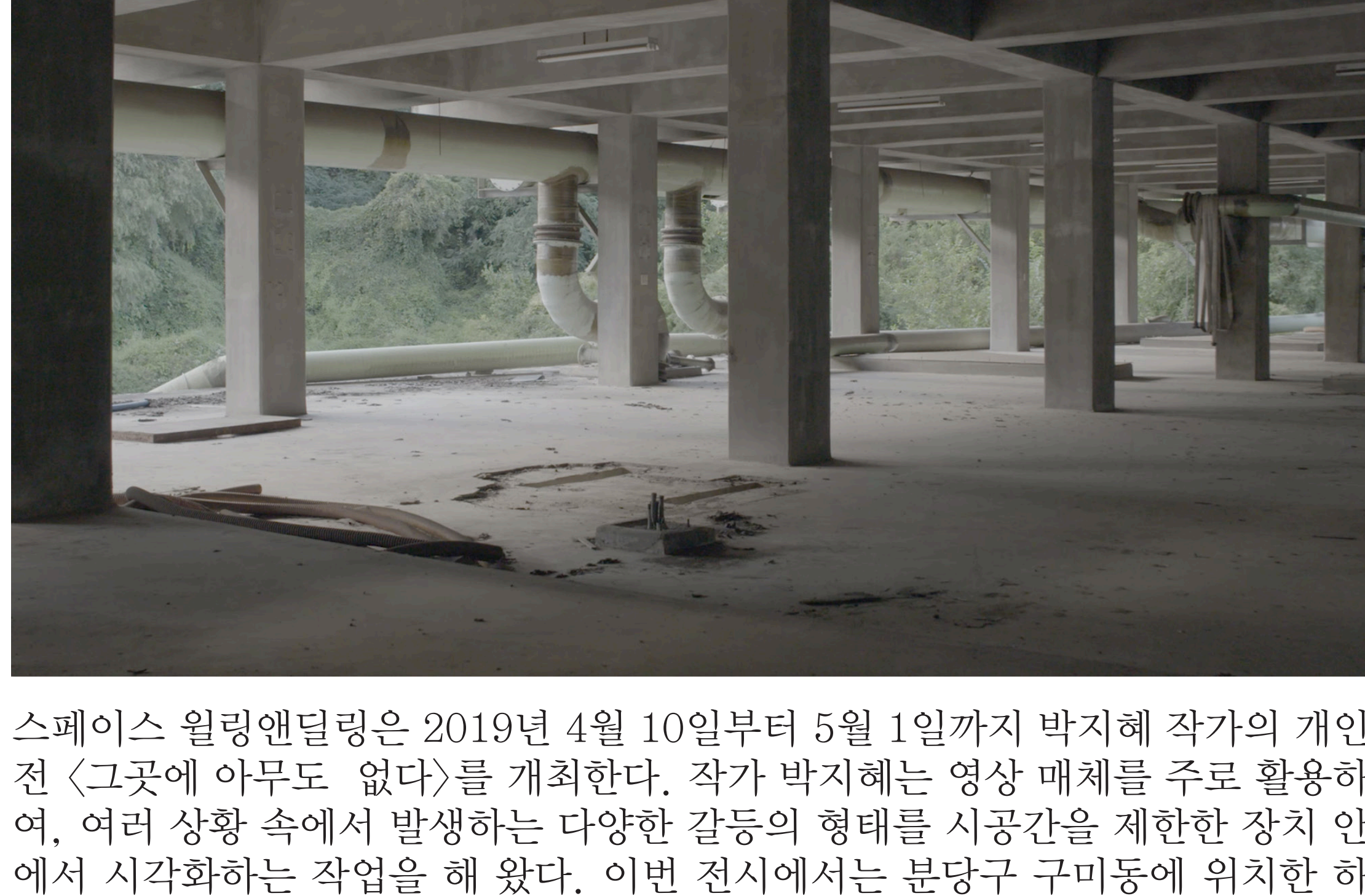


| PREVIEW |

박지혜 <그곳에 아무도 없다> 전시기간 | 2019. 4. 10 수 - 5. 1 수  
Jihye Park <no one is there> 오프닝 리셉션 | 2019. 4. 10 수 오후 2시-7시  
아티스트 토크 | 2019. 4. 27 토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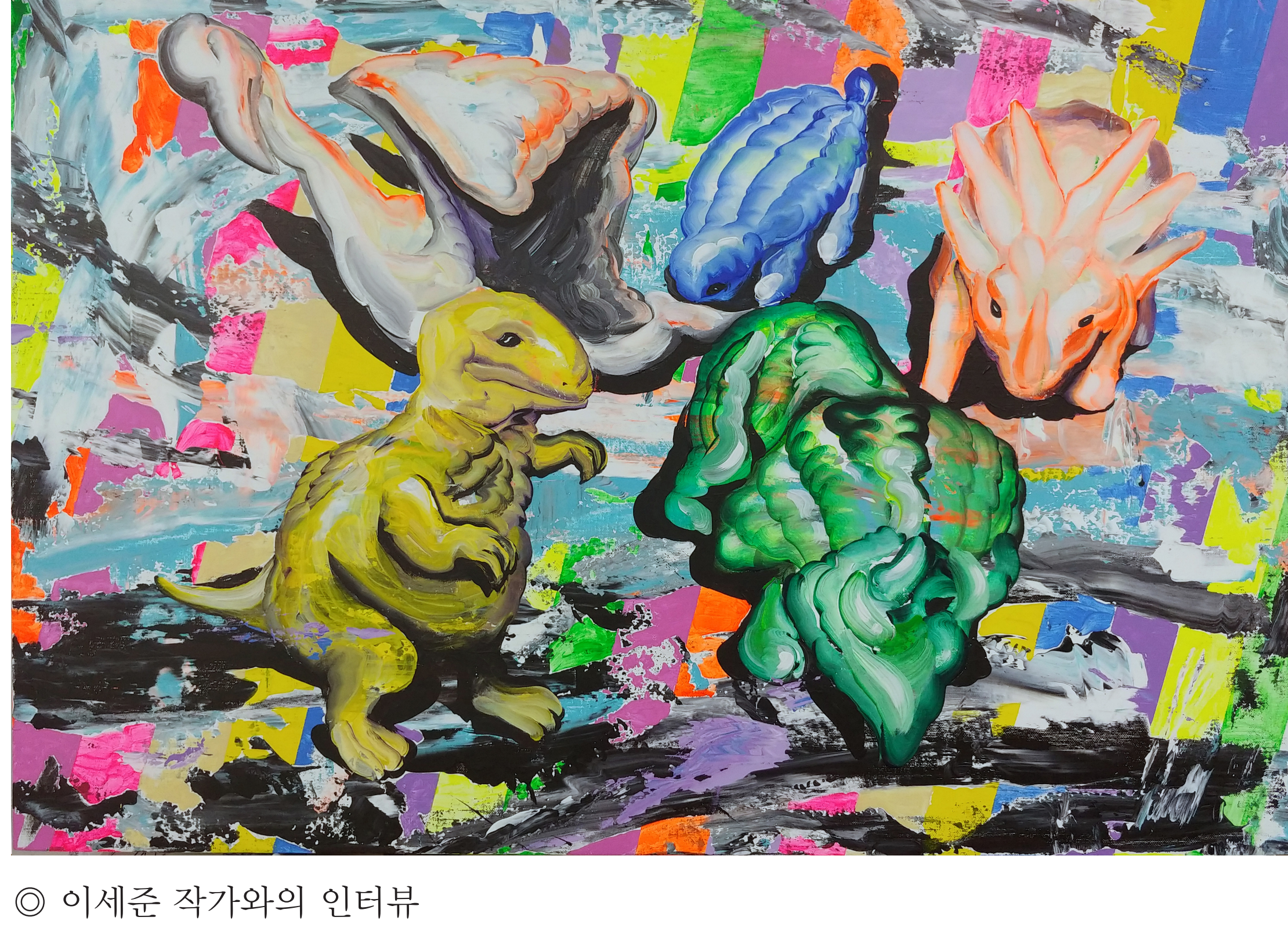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2019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박지혜 작가의 개인전 <그곳에 아무도 없다>를 개최한다. 작가 박지혜는 영상 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여러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형태를 시공간을 제한한 장치 안에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주목하는 신작을 통해, 개인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과 개인 사이의 심리적 풍경에 주목한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말 그대로 하수 처리 시스템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하수가 최종 처리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다.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공간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한국토지공사 가 하수 처리를 위해 199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97년 완공해 시험 가동을 마친 장소이지만, 약취에 대한 집단 민원으로 곧 바로 가동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재 꽤 오랜 시간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각종 동물의 오물과 낙엽, 먼지만으로 가득하다.

박지혜 작가는 자신의 눈을 통해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 공간에 담겨있는 문제적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가는 실제 이 공간을 각기 다른 시간대와 계절에 걸쳐 수차례 방문하여 경험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상 테크닉션, 음악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소리를 채집해 음악으로 만들었다. 그의 영상 작품은 시각 이미지와 사운드를 활용해 현 상황을 함축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전달한다. 작가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통해 관객에게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이세준 <세계관> 전시기간 | 2019. 5. 9 목 - 6. 2 일  
Sejun Lee <Weltanschauung> 오프닝 리셉션 | 2019. 5. 9 목 오후 5시



◎ 이세준 작가와의 인터뷰

Q. 5월에 윌링앤딜링에서 개최하게 될 개인전에 관한 소개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전시들과 차이점 혹은 연결되어 이어지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이번에 열 전시는 세계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한 작업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다소 무거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회화로 표현해 왔고, 이번 작업들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앞의 전시가 세계의 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현방식을 만들어서 세계의 구조를 그림의 구조로 대입시키려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그려지는 그림의 내용에 좀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즉 세계관에 대해 수감하고, 서로 충돌하거나 유사한 관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서 화면에 담으려 했습니다.

Q.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계인, UFO, 귀신, 무신론, 유물론 등 종교적, 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는 설문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설문을 진행하신 이유가, 그 결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다들 자신이 살고있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현실에 문제에 밀려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고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실제로 고민해봐도 딱히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랐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의 세계가 가진 요소들이 상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을 주신 분들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한 천주교신부님과 지적능력이 있는 외계인과 인류가 조우하면 기성종교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나누는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작품을 보면 고양이나 해골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상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기존 작업과 비교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줄어들고 더 단순해졌다 는 느낌이 듭니다. 묘사적으로 그려진 화면과 평평한 이미지들이 병치된 작업도 흥미롭게 보입니다. 다루는 도상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양이와 해골이라는 소재는 오컬트 세계관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현대에 살고있는 마녀의 후손을 상상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화면을 구상하면서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계속 재배치 하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번 등장하는 소재들이 생기기도 하고, 끝말잇기를 하듯 다른 소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회화에 등장하는 소재가 때로는 상징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은유로, 아니면 그냥 조형적인 이유만으로 배치되길 원합니다. 저는 의미의 무게가 들쭉날쭉 할수록 파생되는 사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유로 재현적인 이미지와 표현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한 화면에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물질에서 이미지로 변화되는 순간이 보이는 것 같아 그리면서 즐겁기 때문입니다.

| REVIEW with PHOTOS |

<신건우의 47, 조혜진의 32>  
Gunwoo Shin's 47, Hyejin Jo's 32  
2019. 3. 6 수 - 2019. 3. 29 금



1 | 전시장 전경 2 | 아티스트 토크, 3월 23일 (패널 : 안소연 비평가)

신건우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진 이질적인 이미지를 결합해 단단한 물성으로 종합해 낸다면, 조혜진은 지극히 추상화된 형태로 환원된 선과 면을 종이와 같은 가벼운 가변적인 재료로 물화한다. 한 공간에 놓인 두 작가의 작품은 동시대 조각 작업의 넓은 스펙트럼을 확인케 한다. (글. 최정윤 협력 큐레이터)

강석호 <untitled>  
seok ho kang <untitled>  
2019. 2. 8 금 - 2019. 2. 28 목



1 | 전시장 전경 2 | Q&A Talk, 2월 16일

강석호 작가의 이전 작업들처럼 근접하면 보이는 표면의 생생한 질감은 물론 멀리서 보면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다르지만 결국 같아지는 애매모호한 본질이 어디선가 나와 당신을 비추는 것 같다. 낮의 달처럼 (글. 한향수 코디)

| LECTURE | 윌링앤딜링 현대미술 강연시리즈 : 여성의 시각으로 읽는 미술사

**개요**  
○ 일정 : 2019년 5월 7일 ~ 6월 18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56 2층)  
○ 문의 : 02-797-7893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신청방법**  
○ 수강인원 : 20명  
○ 총 7회 (280,000원)  
○ 이메일 문의 (willingndealing02@gmail.com)  
○ 신청마감 : 2019년 4월 30일 (신청자 개별 연락 드립니다)

**강연자**  
성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무소(samuso:)에서 전시기획을 담당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충북대학교에서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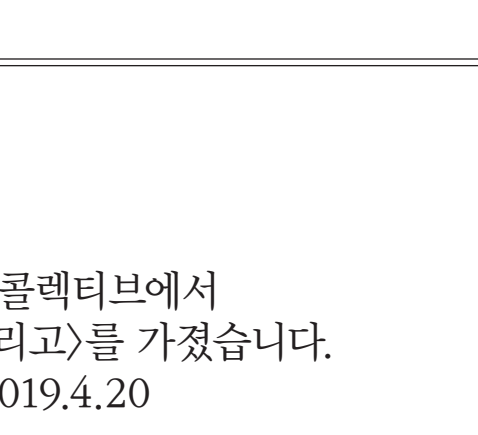
**강연내용**  
본 수업에서는 여성의 시각으로 미술사를 살펴봄으로써, 미술계에 내재된 성과 권력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술의 역사 안에서 여성 미술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 동시에 작품 속에 재현된 여성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대로 살펴볼게 될 것이다.

| SOLO SHOW |

□ 일 정 : 5월 16일 (목) 오프닝행사 4-8pm  
5월 17일(금) ~ 5월 19일(일) 1-8pm  
5월 20일(월) 1-6pm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38  
□ 참여 공간  
가나아트갤러리 | 갤러리2 | 갤러리 신라 | 갤러리 조선 | 갤러리 플레넷 | 갤러리ERD | 백아트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아트사이드갤러리 | 원룸 | 의외의 조합 | 조현화랑 | 학교재 | P21 | Whistle  
□ 주최 및 진행 : 협동작전 (COOP, Check Out Our Project)  
□ 후원 : Myeongsan T&D

<SOLO SHOW>는 15개의 전시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이다. 대형 화랑, 중소형 화랑 및 신생공간, 비영리 활동 공간 등이 참여하여 미술계의 다양한 시스템의 협업을 꾀하며 보다 다양한 종류의 미술시장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작은 공간 안에서 가장 최소화된 시스템 구조를 활용하고 종이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경제적인 규모와 형식의 미술 작업 및 전시행사를 선보인다.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여 단순 관람객으로부터 미술 컬렉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작품 가격부분에 있어서 미술 구입 초심자들의 보다 현실적 접근 가능한 전략을 내세우게 된다. 가벼운 매체이지만 결코 그 퀄리티나 예술 향유의 수준에서 뒤처지지 않는 드로잉 장르를 중심으로 콜라주, 입체 등을 소화하는 다양한 종이 매체의 작업을 선보인다.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한정림** 작가는 상화화랑에서 열린 그룹전 <바람은 개인전>에 참여했습니다. 2019.3.8 - 2019.3.24

**강석호, 김수영, 장중완** 작가는 금호미술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금호아트홀: 16년의 태양과 69개의 눈>에 참여했습니다. 2019.3.21 - 2019.6.30

**박경률** 작가는 BAIK ART에서 개인전 <On Evenness>를 가졌습니다. 2019.4.3 - 2019.5.8

**박정률** 작가는 2019년도 인천아트플랫폼 10기 입주 예술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변상환, 임윤경** 작가는 2019년도 금천예술공장 10기 입주 예술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성은** 작가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마음현상-나의 마추하기>에 참여했습니다. 2019.3.29 - 2019.8.18

**백정기** 작가는 OCI미술관에서 개인전 <접촉주술>을 가졌습니다. 2019.3.13 - 2019.5.4

**권혁** 작가는 씨알갤러리에서 개인전 <구름이 낮을 가리고>를 가졌습니다. 2019.3.7 - 2019.4.20

**권혁** 작가는 중견작가 작품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작품중에서 신중히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오인환, 이미혜** 작가는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그룹전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에 참여했습니다. 2019.3.20 - 2019.6.9

**조혜진** 작가는 스페이스 소에서 열린 그룹전 <PHOTO - initially, finally>에 참여했습니다. 2019.3.14 - 2019.4.14

**한성우** 작가는 별관에서 개인전 <대포 08>을 가졌습니다. 2019.3.8 - 2019.3.28

**한성우** 작가는 Bar "오로시살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남동 241-3, 2층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ohrossaloon

**이세준** 작가는 울산북구창작스튜디오에 장기입주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